

1. [정답] ③

[해석] 한 세기 전, Wilhelm von Humboldt는 “소리와 의미에는 명백한 연관이 있지만, 정확한 설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이것은 종종 흘끗 보고 넘겨지고 말며, 대부분은 불분명한 채로 남는다”고 가르쳤다.

[해설] which 이하가 connection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설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얼핏 보고 넘겨지는 것이므로 ‘불분명한(모호한)’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 lend oneself to : ~에 도움이 되다, 적합하다 / elucidation : 설명, 해명, 해설 / glimpse : 흘끗(얼핏) 보다 / distinct : 별개의; 뚜렷한, 명백한 / semantic : 의미론의 / phonetic : 음성학의

2. [정답] ⑤

[해석] 취약성 평가는 예측되는 영향과 위험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특정 지역의 적응 능력에 대한 분석이다. 취약성 평가는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한 잠재적 손실의 단순 측정 그 이상을 (A)포함한다. ‘취약성’이라는 용어는 손실에 대한 감도와 민감성, 대처 및 적응 능력의 부족 등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기후 변화라는 (B)맥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인다.

[해설] (A): 취약성 평가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단순 측정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우른다’는 흐름이 가장 어울린다. indicates(나타내다)나 requires(요구하다)도 문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B): to include 이하는 동사 is used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따라서 (B) 앞의 전치사 in의 목적어는 ‘climate change (B)’이다. 의미상 기후 변화라는 ‘맥락, 상황, 영역’에서 vulnerability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는 것이므로 context가 가장 적절하고, environment도 가능성이 있다.

[어휘] fortify : 강화하다 / induce : 설득하다, 야기하다 / encompass : 둘러싸다, 포함하다 / avidity : 탐욕, 열망 / context : 맥락, 문맥

3. [정답] ④

[해석] 19세의 Anton은 스스로를 빈곤한 가족의 가장 - 그가 죽을 때까지 망설임 없이 짊어진 책임 - 으로 임명했고, 신문에 웃긴 만화를 투고하여 식비를 벌기로 결심했다.

[해설] 19세의 나이에 가족의 가장이 되어 신문에 만화를 투고해 식비를 벌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가족이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어휘] affluent : 풍부한, 유복한 / destitute : 빈곤한, 결핍된 / amiable : 상냥한, 호감을 주는

4. [정답] ③

[해석] 해외 시장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수동적 투자는, 특히 글로벌 경기 확장이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설] 부대상황을 의미하는 with 분사구문이 쓰였다. 분사구문에서 동사는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여부에 따라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로 전환되므로, be동사가 그대로 들어 있는 ①, ②, 동사 like가 분사 형태로 전환되지 않은 ⑤는 오답이다. 분사구문의 원래 형태는 Global economic expansion is likely to further retreat. 이고, 여기서 동사 is를 being으

로 바꾼 뒤,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면, 최종 형태는 likely to further retreat가 되어 ③이 정답이다. retreat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④처럼 be동사 뒤에 쓸 이유가 없다.

5. [정답] ⑤

[해석] 당신이 최근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다면, 당신은 유명인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매우 유명해진 이 멋진 새 장난감들, 바로 스스로 균형을 잡는 이륜 스쿠터를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기종에 따라 시속 8~20km로 달릴 수 있다. 그것은 무게가 가볍고, 똑똑하며 움직이기 쉽고 타기도 재밌다. 그리고 그것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해설] ⑤ 여기서 it은 self balancing scooter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takes time 뒤의 진주어를 대신하는 가주어이다. 따라서 being used to 뒤에 빠져 있는 to의 목적어를 써 주어야 한다. 앞 문장들에서 계속 it으로 언급해 왔으므로 it을 쓰면 될 것이다. 또한 be used to는 '~에 익숙하다'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에 익숙해지다'가 더 자연스러우므로 being보다는 getting을 쓰는 것이 낫다. 요컨대 getting used to it으로 고쳐야 한다.

① most likely는 동사 (have) seen을 수식한다. 태도 능동태로 오류가 없다.

② 여기서의 alike는 '똑같이, 둘 다'의 의미의 부사로 쓰였다.

③ go는 '이동하다, 운행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제대로 쓰였고, at a speed는 '~의 속력으로'라는 뜻이다.

④ depending on은 '~에 따라'라는 의미로 문제가 없다.

6. [정답] ①

[해석] 한국 내 여행을 고려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비행기보다는 기차를 타는 것을 생각한다. 제주도로 가는 저렴한 항공편이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장소를 비행기로 간다는 것은, 특히 국내 여러 도시들을 이어 주는 적당한 가격의 쾌속열차 KTX가 도입되면서, 사치스러워 보이게 됐다. 이는 한국의 작은 지역 공항들에 타격을 입혔고, 많은 공항들에게 국내선은 수지가 안 맞게 됐다. 국내선에 대한 부진한 수요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로, 항공사들은 여행사,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기차를 타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빠른 한국 당일여행 패키지를 제공했다.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 김포에서 경남 사천, 김포에서 전남 여수, 이렇게 국내 노선 세 개가 현재 할인 중에 있다. 대한항공은 특히 서로 다른 여행 패키지를 제공하는 모두투어, 롯데투어, 한진관광 등 11개 여행사의 국내선 가격을 크게 인하했다.

① 항공사들이 저렴한 당일여행을 제공하여 자신들을 살리다

② 여름에 크게 치솟는 국내선 수요

③ 새로운 국내 항로가 인기 있는 사업으로 부상 중

④ 다양화된 여행 패키지가 더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다

⑤ 최고의 국내여행 옵션으로 부상하는 KTX

[해설] KTX의 도입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사들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의 구체적 예시가 서술된 글이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①이 적절하다.

7. [정답] ①

[해석] 2012년 World Design Capital 이후로 헬싱키는 디자인, 현대 미술, 도시 계획 분야에서 우수성에 대한 추구를 조용히 계속해 왔다. “발트 해의 딸”이라 불리는 헬싱키는 반도의 끝부분 315개의 섬에 위치해 있다. 이 핀란드 수도의 장기적 비전은 도시 건설에 배당금을 지

불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 크레인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활동하고 있고, 부두가 개장되고, 박물관이 보수되었으며 산업 공간이 부활하였다. 이 진보의 물결은 외곽 지역에까지 퍼졌는데, 그곳에서는 최근 복합문화공간부터 가장 전통적인 핀란드 관광지인 사우나까지 문을 열었다. 이제 이 멋진 북유럽 도시의 방방곡곡이 예술과 건축에의 열성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해설] 첫 문장에 제시된, 헬싱키의 디자인, 미술,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의 우수성 추구의 예시가 글 전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다섯 문장 가운데 가장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은, ①의 헬싱키의 지리적 위치를 소개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8. [정답] ④

[해석] 몇몇 이민 가정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언어를 아주 잘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들은 집에서조차 부모 둘 모두가 아이에게 주요 언어로 말하게끔 준비한다. 이 해결책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비(非)모국어로 말해야 하고,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나중에 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항하는 10대를 상대하는 어머니는 반항과 수사를 모국어로 더 잘 받아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이민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현지의 주요 언어로 이야기하려고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빈칸 앞에 제시되어 있고, 빈칸 다음에는 다른 문제점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선택지 중 ‘게다가’가 가장 적합하다.

9. [정답] ②

[해석] 나는 인터넷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 한 커플의 집에 있었다. 남편이 다른 방에서 아내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외쳤다. “대문자 S로 시작하고, 그 다음 123이야”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몇 번이나 S123을 눌렀지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중얼거렸다. “Start123을 입력하는 게 대체 뭐가 어렵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

[해설] ‘나’와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해석]에 쓰여 있는 대로, 대문자 S로 ‘시작하라’는 명령문으로 받아들이고, S를 입력한 후 이어 123을 입력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은 중의적이었다. 즉, start는 동사가 아니고 비밀번호 그 자체, 즉 ‘대문자 S를 가진(S로 시작하는) Start, 그 다음 123’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답은 Start123이다.

10. [정답] ⑤

[해석] A: 나 어젯밤에 거의 사고 날 뻔했어.

B: 무슨 일이었는데?

A: 음, 고속도로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내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 있지.

B: 그 차를 들이받았어?

A: 아니, 하지만 거의 그럴 뻔했어. 정말 아슬아슬했지.

B: 그래서 어떻게 했어?

A: 딱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틀어 갓길로 갔어.

B: 너 정말 운이 좋았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었어.

① 그것은 초조해했어

② 인상적인 순간이었어

③ 나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어

④ 그는 시류에 편승했어

⑤ 정말 아슬아슬했어

[해설] 앞차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차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슬아슬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11. [정답] ①

[해석] 지성의 모든 문화 간 비교는 진정한 비교가능성의 부재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고, 지적 능력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인종적’ 차이에 대한 일반화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치가 없다.

[해설] 진정한 비교가능성이 없이는 지성의 비교의 ‘가치가 저하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두 번째 문장의 보어 worthless와 어감이 비슷한 것을 고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될 것이다.

[어휘] vitiate : 가치를 떨어뜨리다, 손상시키다, 해치다 / endorse : 승인하다 / rejuvenate : 도로 젊어지게 하다, 활기를 띄게 하다

12. [정답] ⑤

[해석] 내 여자친구는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길 여자가 아니다.

[해설] go back on one's word : 약속을 어기다(지키지 않다)

13. [정답] ②

[해석] 선거는 국민이 공직을 구성할 개인들을 선택하는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선거는 17세기 이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작동했던 통상적인 메커니즘이었다. 선거로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정부나 사법부,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① 정부 구조 ② 대의제 민주주의 ③ 정치적 영향 ④ 정부의 리더십 ⑤ 정치적 이념

[해설] 빈칸에 들어갈 것이 선거를 통해 운영(작동)되었다고 말한 이후, 선거가 구성할 수 있는 조직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선거로 이들 조직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국민이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정치 조직을 구성, 운영하게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된다.

14. [정답] ④

[해석] 마우스를 만들 때, Douglas는 Stanford Research Institute에서 일하고 있었다. 본래 마우스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위한 X-Y 위치 표시기”라고 불렸다. 컴퓨터 마우스는 뒷부분으로 줄이 나와 있는데, Douglas는 그 장치가 설치류 쥐를 연상시켰다고 말했고, 마우스는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설] ‘A를 B라고 부르다’는 의미의 refer to A as B 구문을 수동태로 바르게 전환한 형태를 묻는 문제이다. S refer to A as B를 수동태로 전환하면 목적어 A가 주어 자리로 나오고 본래의 주어는 by + S 형태로 문장 뒤로 가거나 생략되어, A be referred to as B가 된다. 따라서 답은 ④이다.

15. [정답] ③

[해석] 19세기 동안 높은 이민 비율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의 수와 어디서 올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몇몇 법률이 통과되었다.

[해설] ③ only가 문두로 나가면서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는 several laws로 복수이므로, 동사도 복수형으로 were라고 고쳐야 한다.

① Although 뒤에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Although의 사용은 문제가 없다.

② 법이 통과된 20세기 초가 과거시제로 표현되고 있고 그보다 앞선 19세기의 상황을 서술하는 절이므로, 과거완료 시제로 표현한 것은 문제없다.

④ pass는 ‘법안을 통과시키다’는 의미의 타동사로, 앞에 도치된 be동사 were와 조합하면 Several laws were passed가 되므로 올바른 형태이다.

⑤ 여기서 where절은 동사 restricted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의문문이다.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주어 + 동사’이므로 문장의 어순은 올바르고, come from은 ‘~의 출신이다, 국적이 ~이다’를 의미하므로 문장의 의미도 문제가 없다.

16. [정답] ②

[해석] 이번 세기 초부터 영어 연구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영국인은 자기 나라 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마침내 우리 영국인은 무엇인가 살아 있고 변화하는 것으로서의 우리 모국어에 눈에 띄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설] 문장의 본동사는 문장 앞에 is로 존재하므로, make는 준동사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문장의 의미상 영어 연구에서 ‘만들어진(이루어진)’ 진전으로, progress와의 관계는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made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progress 뒤에 which is가 생략된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17. [정답] ①

[해석] 의학계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에서 암,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주요 질병이 감소하고 있는데, 개선된 진단과 치료법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진 않는다. 과학자들은 이 좋은 소식에 놀랐지만, 그들 대다수는 흥미롭고 강력한 설명을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흥미롭고 강력한 가정들 중 무엇이 옳을 것인지를 가려내는 도전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이 사안에서 사실인 부분은, 이 질병들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란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큰 고통을 유발하고 매년 수백만 명을 죽인다. 그러나 뜻밖에도, 미국과 몇몇 다른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고령이라는 질병을 물리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질병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욱 노년기가 되어서야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좋은 건강 상태로 더 오래 살고 있다.

① 노화 과정이 느려졌기 때문에, 주요 질병들이 감소 추세에 있다.

② 성인병에 관한 수수께끼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③ 미국인들은 다른 부유한 국가 사람들보다 주요 질병에 더 취약하다.

④ 의학계의 변화가 미국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⑤ 의학적 딜레마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 글 앞부분에서 주요 질병이 감소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한 후, 그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글 마지막 부분에서 질병은 그대로 존재하나 그것이 나타나는 시기가 더 늦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나머지 선택지는 본문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18. [정답] ④

[해석]

(D) 한 경찰관이 과속 운전자들을 감시할 완벽한 은신처를 발견했다.

(B) 그러나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속도 제한을 지키자 그 경찰관은 놀랐고, 이에 그는 조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냈다.

(C) 열 살짜리 소년 하나가 손으로 그린 큼지막한 “전방에 레이더 함정 있음”이라는 표지를 들고 길가에 서 있었다.

(A) 경찰관은 좀더 조사를 하여 소년의 공범도 알아냈다. 레이더 함정에서 100야드쯤 지난 곳에 한 소년이 “TIPS”라고 쓰인 표지를 들고 발밑에 잔돈으로 가득한 바구니를 갖고 있었다.

[해설] (A), (B)에 정관사를 사용하여 the officer라고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 앞에 먼저 A police officer라고 표현된 (D)가 위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C)의 A boy, (A)의 another boy로 볼 때 (C) 다음에 (A)가 위치해야 하고, 문맥상 이 두 소년은 경찰관이 조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사람들이 모두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것)이므로 (B)의 the problem 뒤에 (C), (A)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D)-(B)-(C)-(A)이다.

19. [정답] ②

[해석] 무언가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려져 있는 물체와 사건을 말로 설명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단계였다. 비록 그것들은 느슨한 기억 자극제 역할을 하는 연상 기억 장치에 불과했지만, 동굴 벽화 같은 묘사들은 아무 도움 없이 기억해내는 것과 비교할 때, 이야기꾼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도왔다. 사실, 이는 글쓰기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 모든 형식에서, 글쓰기는 이전에 표현된 생각들을 보존하는 도구이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의 컴퓨터 용어를 빌리자면) 글쓰기는 정보 저장 시스템이다. 우리가 컴퓨터에 더 많은 저장 용량을 원하는 것처럼, 원시 시대 사람들은 인간 기억의 제한과 부정확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림 표현이라는 시스템을 추구했던 것이다.

[해설] 빈칸 앞에서 그림을 통한 묘사는 사람들의 기억을 돕고자 하는 것이란 설명이 나오는데, 빈칸 뒤에서는 글쓰기 역시 생각을 저장하여 기억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므로, 내용을 지속시켜 주는 순접의 의미로 in fact를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0. [정답] ③

[해석] 몇몇 현대 작가들은 몸의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이 성적 흥미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교묘한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옷은 “난 비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동등하다. 그것은 사람을 애타게 하는 것이자 유혹이다. 성적으로 자극적이라 여겨지는 인간 몸의 부분들이 그것들에 대한 관심을 부풀리고 이끌기 위해 그런 식으로 종종 가려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형형색색 빛나는 옷과 곡선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마치 생일선물이 미치는 영향을 가져다 준다. 우리는 호기심과 흥미에 이끌리고, 포장을 풀고 싶어진다.

① 성적 흥미를 감소시키고 억제한다

② 개인의 신체의 비밀을 완전히 가린다

③ 그들에 대한 관심을 부풀리고 이끈다

④ 개인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가린다

⑤ 그것들을 대중에 생생하게 드러낸다

[해설] 첫 문장에 답의 실마리가 있다. 몸의 특정 부분을 가리는 것은 오히려 그에 대한 흥미를 자극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므로, 성적으로 자극적인 신체 부위를 가리는 것의 목적은 ‘그에 대한 관심을 끌고 증폭시키기 위함’일 것이다.